



메르넵타의 석비

메르넵타의 석비에 음각으로 기록된 이집트 상형문자 “이스라엘”

테헤누(Tjehenu: 리비아인 부족)는 정복당하였다. 하티(Khatti: 히타이트족)는 평화로왔다. 가나안은 고를 가운데 포로되었다. 아쉬켈론(아스켈론: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은 정복당하였고, 게셀(게셀: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는) 사로잡혔다. 야노암(가나안 사람들의 도시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

메르넵타 석비 (Merneptah Stele)

람세스 2세(1279-1213 BCE)의 열세 번째 아들이 메르넵타가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1213-1203 BCE). 람세스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큰 아들을 잃었던 바로 그 파라오입니다. 강력한 군주였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죽고, 메르넵타가 파라오가 된지 5년째 되던 해(1209 BCE)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온

해양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이집트를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쳐들어왔던 이 전쟁이 이집트에게는 나라의 국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메르넵타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왕들은 의례 자기의 승리의 기록을 약간의 과장을 곁들여 남

겨 놓는 것이 고대 국가의 풍습이었습니다. 메르넵타도 이 승전 기록을 시의 형태와 이야기의 형태로 각각 카르낙 신전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승전 기록에 의하면, 여섯시간 동안 리비아-해양 민족 동맹군과 싸워서, 9,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니,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알만 합니다. 석비에는 리비

아와 해양 민족들의 땅들로 진군한 **파라오**가 점령한 도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비에 기록된 **가나안**의 도시와 민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중해변, 해양 민족을 대표하는 도시인 **아스겔론**(수 13:3), (2) 지중해와 산지를 연결하는 지역(셰펠라)을 대표하는 **게셀**(삿 1:29), (3)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야노아**(수 16:6), (4) **유대** 산지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1896년에 이 석비를 발견한 영국 고고학자 **페트리**(Flinders Petrie)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성경 이외에 **이집트**의 문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최초의 고대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는 나라를 가리키는 유일한 **이집트**의 문헌이 바로 이 **메르넵타**의 석비입니다.

아버지의 때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르넵타**에게 손톱의 가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집트**의 국력에 비하면, 그 힘은 미미하지만, 제국의 노예들이 탈출해서 만든 나라라는 것만으로도 **이집트**의 **파라오**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이미 예전부터 **이집트**와 불편하게 국경을 맞대고 전략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해양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마

주하고 있었기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오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툼이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한번 쯤 전쟁으로 **이집트**의 힘을 보여주어야만하는 상황이 **메르넵타**의 때에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바뀌었으니, 아버지 **람세스 2세**처럼 자기도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거구요. **메르넵타**는 **이집트**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서쪽의 **리비아**, 그리고 동쪽의 해양 민족과 **유대** 산지의 **이스라엘**을 거쳐 **갈릴리** 지역까지 원정을 했습니다.

❖ 19세기 말까지만해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 (1) **이집트**와 시내 반도에서 출애굽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출토되지 않은데다가, (2)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신화, 또는 전설이나 민담 정도로 취급하려는 경향성이 강했다. (3) 게다가 성경이 활자화 된 것이 출애굽의 시기보다 훨씬 후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페트리**(Flinder Petrie)는 매우 선각자적인 인물이었다. **이집트**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주로 발굴하는 장소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카이로**(Cairo)와 **아스완**(Aswan) 지역이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히브리** 노예들이 거주하던 곳은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수백개의 고고학 발굴지가 있으니, 당시에는 관심 밖의 지역이었다. 또 **파라오**의 업적을 기록한 기록물들에는 실패한 전쟁이나 **파라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담지 않으려는 경향성은 노예들의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높인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을 증명할 만한 고고학의 증거는 있는가? 창세기 43:1-15에서 이야기하듯, 유목민들이었던 **셈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사한 사실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문자화된 기록과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이미 증명되었다. 특별히 **이집트**가 **가나안**과 **시리아**, 그리고 **누비아**를 침공한 후,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벽돌 만드는 일에 노역시키는 **이집트** 감독관의 그림이 그려진 **투트모세 3세**(1457-1425 BCE) 시대의 그림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 노역과 흡사하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은 어떻게?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성서 학자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두고 그 증거를 찾기위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와 마을의 이름들이었다. 출 1:11에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에 야곱의 아들들이 동원된 이야기가 나온다. **라암셋**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1279-1213 BCE)가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 건축한 **피-람세스**(Pi-Ramesses: 람세스의 집)이다. 그리고, **비돔**(Tel el-Retabeh) 역시 신왕국 시대, 19왕조의 도시로 **람세스 2세** 때의 도시이다. 간략하게 설명한 이 예들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다.

J.K. Hoffmeier, “Out of Egypt,” in *Ancient Israel in Egypt and the Exodus*, ed. M. Warker (Washington DC: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2), 1-20.

◆ 메르넵타 비문의 번역

1-4행 호루스의 통치 아래에서 5년째 되던 해, 세번째 달 3일. 위대한 불(Bull: 신의 이름), 마앗(Maat: 신의 이름)때문에 비롯된 기쁨.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Banere-meramun: 메르넵타의 다른 이름), 레(Re: 신의 이름)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는 메르넵타(Merneptah). 그 능력이 대단했으며, 아홉 활을 꺾어 그 이름이 영원하며 강한 황소와 같은 호루스가 찬양했던 메르넵타. 전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모든 땅들이 그 승리를 알게하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메르넵타의 승리의 노래.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 레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였던 메르넵타. 그의 적들을 도륙한 힘의 주인인 불. 그가 공격하였을 때, 그의 용맹함이 온 지역에 빛났다. 이집트를 덮었던 구름을 쫓아낸 슈(Shu), 이집트가 태양의 광선을 보게 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목에서 구리 산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묶여 있었던 민족들을 숨쉬게 해주었다. 그는 멤피스(Kut-ka-Ptah: 이집트의 도시)가 적들을 이기게 해서 기쁨을 주었다. 타-테넨(Ta-tenen: 멤피스의 신)이 대적자들을 대항해 승리하게 하였다. 멤피스의 문을 여는 자들이 빛장으로 잠겼던 문을 (열리도록) 허락하였고, 성전들이 그들의 재물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 레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였던 메르넵타.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는 수백, 수천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그의 앞에서 그들의 쿠투무로 숨이 들어가게 하였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리비아를 파괴하였고, 메쉬웨쉬(Meshwesh: 리비아의 한 부족의 이름)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5-9행 그는 이집트에 들어 닦쳤던 리비아인들을 막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집트의 공포를 심었다. 그들의 선발대는 낙오했다. 그들의 다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들의 궁수들은 자기들의 활을 버렸다. 그들이 달리나, 그 달리는 자의 마음이 점점 허약해 졌다. 그들은 물가쪽 부대를 풀어내고서는 던져버렸다. 그들은 짐들을 풀어 헤치고는 버렸다. 리비아에서 온 작중에 하나인 형편없는 사령관은 깊은 밤중에 홀로 도망쳤다. 머리에 깃털 장식도 끼지 않고, 신발도 신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보는 앞에서 납치되었다. 받아야할 음식 보급물자도 빼앗겼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눈빛이 맹렬히 불렀다. 그의 군대의 지도자들은 서로 싸웠다. 그들의 장막은 불타 재가 되었다. 그의 모든 물건들은 이집트 군대의 물자가 되었다.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는 비탄에 빠졌다. 그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다. “지도자,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 나쁜 깃털(지도자)의 마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멤피스의 주인들인 신들의 능력에 압도되었다. 이집트의 신들이 그의 이름을 저주받을 이름으로 바꾸었다. 메레이(Merey: 리비아 지도자의 이름)는 멤피스의 혐오스러운 존재이다. 그의 아들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네레-메라문은 그의 자손들의 추격할 것이다. 마아트가 흡족해하는 메르넵타가 운명처럼 그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는 리비아 사람들의 속담에 등장했다.

10-14행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의 승리를 말했다. 레의 때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솔 프다. 리비아 사람들이여! 그들이 살 수 없게 되었구나. 온 땅을 떠도는구나. 언젠가는 그들의 떠돌이 생활도 멈출 것이다. 세트(Seth: 이집트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신)가 그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마을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 날에 짐을 나르는 일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동굴에 숨기는 것이 안전한 날이 온 것이다. 이집트의 위대한 주는 강하고 용맹하다. 누가 그와 싸우며, 그가 어떻게 할보할 지를 어찌 알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그에게 도전한다. 그의 국경을 공격하는 이에게 내일은 없다.” 이집트에 대해서 그들이 속담처럼 이와 같이 말한다. “신들의 때 이래로 이집트가 프레(Pre: 이집트의 신)의 유일한 딸이다. 그의 아들이 슈의 왕좌에 오른다. 그를 공격하는 어떤 민족들도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신들의 눈이 이집트를 악랄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눈이 모든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별들을 지켜보며 바람의 방향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말한다. 놀라운 기적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이집트를 공

격하는 자들이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었다. 신적인 왕의 대변자를 통해서 프레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제압했다. 은밀히 악을 행하는 메레이는 멤피스의 모든 신들에게 들에게 은밀하게 악을 행한다. 그는 온(On: 이집트의 도시)에서 싸웠다.

15-19행 엔니드(Ennead: 이집트의 신) 그의 범죄 행위를 찾아냈다. 엔니드가 모든 신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의 아들에게 칼을 쥐어 주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온유한 바네레-메라문에게 말ियो. 누가 멤피를 돌볼 것이며, 누가 온의 복수를 하겠소? 누가 빗장 걸린 곳을 열겠소? 그는 모든 지역의 닫힌 곳에서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하였소. 그는 신전에 제물을 드렸소. 그는 신들에게 항을 피우 올리도록 조치 했소. 그는 존귀한 자들에게 자기들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해주었소. 그는 그의 마을들씩 겸손한 자들을 넘치게 하였소.” 그러자 온의 신들이 그들의 아들인 마아트가 흡족해 하는 메르넵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에게 레와 같은 삶을 주여라. 외적으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복수하게 하라.이집트는 그에게 임무를 맡기라.그가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게 하라.” 보라. 위대한자의 때에 사람들이 살아간다. 평안이 숨쉬며 살아간다. 용사들은 정당한 부를 나눈다. 간사한 자들은 그가 악랄한 것을 유지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 재산을 준다. 이렇듯도 이야기 해야한다. 비열한 리비아 적 메레이가 멤피스의 성벽을 공격했다. 멤피스의 산은 그의 아들이 일어서게 하였다.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 레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였던 메르넵타. 그리고는 비열한 리비아인 적에 대해서 프타(Ptah: 이집트의 신)가 말하였다.

20-28행 “그의 죄악이 모두 그의 머리 위로 돌려질 것이다. 그를 마아트가 흡족해 하는 메르넵타의 손에 넘쳐주어라. 그(메르넵타)가 악어가 삼키듯 그(메레이)를 삼킬 것이다. 보라. 날센 자가 날센 자를 낚아챌 것이다. 그(메레이)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신이 덧을 놓아 그(메레이)를 잡을 것이다. 아문(Amun: 이집트의 신)이 그의 손으로 재갈을 물릴 것이다. 그(메르넵타)가 온의 남쪽(Thebe 테베)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 레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였던 메르넵타. 이집트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의 마을에 큰 기쁨의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것은 마아트가 흡족해 하는 메르넵타의 승리의 소식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승리하는 통치자여! 얼마나 찬양받을 만한가, 신들의 왕이여! 얼마나 찬란한가, 장군들의 주여! 얼마나 달콤한가, 앞서서 나누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닌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요새들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우물들은 전령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껍이 열려졌다. 요새화된 방벽은 무너졌다.태양 빛만이 파수꾼들을 깨운다. 메드자이(Medjai: 이방인으로 고용된 군인 부족이름)들은 잠들었고, 나우(Nau: 이방인으로 고용된 군인 부족이름)와 테켄(Teken: 이방인으로 고용된 군인 부족이름)이 그들이 사랑하는 풀에 들어갔다. 가족들은 들에서 방황한다.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는 목동이 아무도 없다. 밤에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잠깐, 내가 간다.” 낮선이의 목소리 노래를 부르며 가고 온다. 사람들은 슬피 울거나 애곡하지 않는다.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정착한다. 자기의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이가 멎게 될 것이다. 레는 이집트를 다시 좋게 만들어나간다. 그 아들(메르넵타)이 그 도시의 보호자가 되었다.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 레의 아들. 마아트가 흡족해하였던 메르넵타. 고관들이 땅에 엎드리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다. 아홉 활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머리를 들지 못한다. 티헤누(Tjehenu: 리비아인 부족)는 정복당하였다. 하티(Khatti: 히타이트족)는 평화로웠다. 가나안은 고동 가운데 포로되었다. 아시켈론(아스켈론: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은 정복당하였고, 게젤(게셀: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은 사로잡혔다. 야노암(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 남지 않았다. 이곳 저곳을 떠도는 이들 모두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왕, 바네레-메라문레의 아들이자 마아트가 흡족해 하는 메르넵타에게 복종하였다.



카르낙 신전. “요새화된 도시”라는 뜻의 카르낙 신전은 이집트 중왕국 시대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 신전 건물의 대부분은 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이집트의 룩소르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메르넵타 석비는 현재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메르넵타가 남긴 석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석비 때문에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메르넵타의 때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들의 공동체가 유대 산지에서 주도적인 세력 또는 국가(12지파의 연합체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비에 기록된 도시와 지역들은 그곳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시대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이 세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민족이었기 보다는 그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주해온 가문, 또는 그 식솔이 꽤나 많았기에 좀 알려진 가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집트를 위협할만한 정치적인 체제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집트가 광복할만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때는 출애굽 이후,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였습니다.

요새이자 국고성이었던 람세스와 비돔을 건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였다면(출 1:11), 그 시기는 람세스 2세의 때일 겁니다. 그 때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유대 산지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으니, 메르넵타 석비에 등장하는 이름 “이스라엘”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룹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심지어는 현재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분열왕국 시대 (유대 왕국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유대 산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 또는 국가적인 체제를 갖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뭉쳐진 촌락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 솔로몬의 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했기 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꿈과 희망이 담긴 과장이

라고 하는데요. 메르넵타의 석비는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유대 산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적인 체제를 갖춘 공동체로 알려졌음이 확실해 졌으니, 이 또한 이방인의 손으로 성경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을 쓰는데, 참조한 책들

David, Rosalie. *Voices of Ancient Egypt: Contemporary Accounts of Daily Life. Voices of an Era.* Santa Barbara: Greenwood, 2014.

Lichtheim, Miria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 Volume II: The New Kingdo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